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

일시: 6월 4일(화) 오전 9시  
장소: 중앙대학교 본관(201관) 앞

사회: 인문대학 부학생회장 이연지

### <진행순서>

#### 1.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경과보고

#### 2. 비상대책위원회 성명 낭독

#### 3. 연대발언

-서울캠퍼스 61대 총학생회 성평등위원장 장비단

-영어영문학과 부학생회장 백지영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과대표 채태준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이재정

#### 4.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재학생·졸업생 1531인의 서명 및 학술 공동체 서명> 전달 및 본관 게시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메일: cauwithyou@gmai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cauwithyou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8-4959824 (ㄱㄴㅇ)

## 1.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경과보고

2018. 11.

사건 발생 및 학내 인권센터에 사건 접수

2018. 11. 26.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 비대위는 A교수가 2018년 11월 초, A교수의 학부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공론화했다. 비대위는 해당 사건을 "교수가 그의 사회적·지적 권위와 학생의 신뢰를 악용한 권력형 성폭력 사례"라고 규정하고 "상습적으로 여학생과의 만남을 시도"해온 정황을 제기했다. 또한 "권위에서 벗어난 교수"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고 "학업이나 책, 영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들과 친분을 쌓은 뒤에 서서히 술자리와 영화 약속 등의 개인적 접촉을 시도하는 형태"로 보아, 해당 사건을 "여학생들과의 사적인 접촉을 위해서 '지식'이라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한 '가스라이팅'이자 '또 다른 형태의 권력형 성폭력'이라 주장했다.

2018. 11. 27.

경향신문 보도 "[단독]"성폭력 그 교수, 조사해주세요" 중앙대 비무"

2018. 11. 28.

-한겨레 보도 "'성폭력 의혹' 중앙대 교수 '인간관계 끊을 일이나' 2차 가해"

-중앙일보 보도 "중앙대 영문과 교수 성폭력 의혹... 학교 측 강 의 배제"

-KBS 보도 "중앙대, 영문과 교수 '성폭력 의혹' 진상조사"

외 다수 언론 보도

2018. 11. 29.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졸업생 연대 성명서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성폭력 사건 가해자 A교수의 처벌 및 문화연구학과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발표

2018. 11. 30.

중앙대학교 제 31대 영어영문학과 학생회 연대 성명서 <우리는 권력형 성폭력에 절대 눈 감을 수 없다> 발표

2018. 12. 3.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 연대 성명서 <우리의 대학에 성폭력 가해 교수를 위한 자리는 없다> 발표

2018. 12. 4.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재학생 연대 성명서 <이것은 도대체 몇 번째 일인가> 발표

2018. 12. 5.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 및 대학 내 위계구조와 불평등한 젠더문화 변화를 촉구하는 문화연구자·인문학연구자 선언> 발표

2018. 12. 10.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회 ‘중앙대 영문과 A교수 성폭력 의혹 관련 설문조사’ 실시  
-헤럴드경제 보도 “중앙대 교수 성폭력 사건 “대학내 위계구조 달라져야” 연대 목소리”

2018. 12. 12.

-인권센터 인권대책위원회 1차 회의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생 일동 연대 성명서 발표  
-중앙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독지> 연대 성명서 <우리의 #metoo는 계속되어야 한다> 발표

2018. 12. 20.

비대위 성명 포함 학내 대자보 무단 철거 사건 발생  
: 학생으로 추정되는 두 명에 의해 비대위의 성명서를 포함한 학내 대자보들이 무단 철거됐다. 철거된 대자보의 대다수는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이에 비대위는 1월 8일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2018. 12. 27.

A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센터 전수조사 실시

2019. 1. 8.

대자보 무단 철거 사건 관련 비대위 고소장 접수

2019. 1. 15.

인권센터 조사분과위원회 1차 회의

2019. 1. 16.

한겨레 보도 “[단독] 중앙대 교수 성폭력 규탄 대자보 밤사이 훼손…경찰 수사 착수”

2019. 1. 17.

비대위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관련 대외 설문조사’ 실시

2019. 2. 7.

인권센터 인권대책위원회 2차 회의

: 대책위원회 결정사항

- 1) 학업 및 진로 등에 대한 면담으로 사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사제 관계를 넘어 개인적이고 성적인(Sexual) 행위로 나아가 문제가 발생함
- 2) 피신고인은 학생들과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성적인(Sexual) 관계로는 나아가지 않았고 신고인과 친밀했어도 교수로서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된 사안에서는 평소 인지하고 있던 교원의 지위와는 달리 일방적인 성적 행동을 통해 학생의 지위를 침범하고 성적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문제가 제기됨
- 3) 인권대책위원회에서는 교원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인사 규정 제42조(품위유지의 의무)에 근거하여 피신고인이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단함
- 4) 따라서 인권대책위원회에서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4조(인권대책위원회의 업무)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에 피신고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함
- 5) 병과하여 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15조(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제2항 제4호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함

2019. 2. 28.

인권센터 인권대책위원회 3차 회의

2019. 3. 4.

인권센터 인권대책위원회 결정사항 학내 게시

: 결정 사항 (2019. 2. 28. 최종 결정)

- 1) 인권대책위원회에서는 교원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인사 규정 제42조(품위유지의 의무)에 근거하여 피신고인이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단함
- 2) 따라서 인권대책위원회에서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4조(인권대책위원회의 업무)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에 피신고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함
- 3) 병과하여 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15조(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제2항 제4호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함
- 4) 인권대책위원회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어영문학과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019. 3. 7.

이데일리 보도 “중앙대 인권센터, 재학생 ‘성폭력’ 의혹 영문과 교수에 중징계 권고”

2019. 3. 18.

비대위 성명서 <‘품위 손상’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발표

: 학내 인권센터(이하 대책위) 과정을 거친 뒤, 3월 4일 대책위 결정사항이 학내에 게시 됐다. 대책위는 “교원의 책임이 엄중”하다는 판단 아래, 해당 교수가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A교수의 성폭력과 관련해 교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라는 조항에만 근거해 징계를 요청했으며, 해당 사건이 ‘성폭력’임을 명명하지 않았다. 근거 조항으로 해당 사건이 성폭력임을 드러내는 조항을 포함해 달라는 피해자와 비대위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인권센터는 이를 기각했다. 최종 결정 사항은 “동의없이 개인적이고 성적인(Sexual)한 행위로 나아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2차 대책위 결정통지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비대위는 교수-학생간의 성폭력 문제는 비단 “품위유지”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으며, 인권센터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촉구해야함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9. 5. 13.

비대위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징계 촉구 서명운동 실시

: 중앙대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A교수의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1531인의 중앙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서명에 참여했다.

2019. 5. 25.

비대위 중앙대학교 영문과 A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학술 공동체 서명 실시

: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학술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A교수의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2019. 6. 4.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201관) 오전 9시 30분 징계위원회 예정

## 2. 비상대책위원회 성명

징계위원회는 ‘파면’으로 답하라

영문과 A교수 성폭력 사건 공론화 이후 여섯 달이 지났다. 고발 이후 피해자는 A교수가 드나드는 학교에, 고발을 의심하는 2차 가해성 자보에 노출됐다. 사건을 접수한 인권센터는 ‘품위유지의 의무’만을 들며 조사를 마무리 지었고,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해달라는 피해자와 비대위의 요구는 거절당했다. 알려진 성폭력 사건만 벌써 세 번째인 영어영문학과 차원의 조치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피해자와 비대위는 지난 여섯 달 동안 성폭력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미비한 인식과 사건 해결에 치명적인 제도적 한계에 맞서 싸워왔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A교수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우리는 강단에서 혐오 발언을 일삼은 교수가 고작 ‘견책’ 처분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 수년에 걸쳐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교수에 대한 징계위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A교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유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또 있다. A교수에 합당한 징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1531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동참했지만, 비대위는 징계위원회에 이 서명을 전달할 방법을 수소문해야 했다.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 심지어 징계 결과조차 피신고인에게만 통지되며, 피해자는 알 수 없다. 인권센터와 영어영문학과와의 무응답에 이어, 6개월의 사건 처리 절차 끝에 피해자는 또다시 징계위원회의 무응답을 마주해야 한다. 정당한 근거조차 없이 폐쇄성을 고집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 1531인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다.

A교수를 규탄하는 연대 자보는 아직도 학교 곳곳의 벽면을 채우고 있다. 2차 가해성 자보에는 피해자와 비대위를 지지하는 포스트잇이 붙었다. 1531인의 중앙대 구성원이 A교수의 성폭력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드는 것은 학교의 의무다. 징계위원회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의 결박한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징계위원회는 A교수를 파면하라. 파면을 통해 수년에 이어지는 학생들의 요구에 이제는 응답하라. 파면을 통해 성폭력이 반복되는 대학을 정화하는 데 일조하라. 나아가 징계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조차 사건의 결과를 알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하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을 감행했다. 징계위원회가 무수한 고발들이 갖는 무게를 알고 있다면, 안전한 학교에서 일상을 지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동감한다면, 해당 사건에 파면을 내리는 것으로 답하라. 그 외의 결과는 해당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구성원에 대한 기만이며, 징계위원회의 폐쇄성에 기댄 책임 회피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징계위원회는 A교수를 파면하라!

하나, 징계위원회는 가해자에게만 징계 결과를 통지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하라!

2019. 6. 4.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연명-

서울캠퍼스 61대 총학생회 알파 / 안성캠퍼스 61대 총학생회 동행 / 서울캠퍼스  
성평등위원회 / 인문대학 학생회 /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 국어국문학과 학  
생회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 / 사회학과 학생회 / 영어영문학과 학생  
회 / 일본어문학전공 학생회 / 정치국제학과 학생회 /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 대  
학원 사회학과 / 반성폭력반성매매 모임 <반> / 사회학과 학회 <포혜> / 성소  
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 / 여성주의 교지 <녹지> / 여성주의 학회 <여  
백> / 영화학과 성평등위원회 / 인문대 페미니즘 동아리 <바리> / 자유인문캠  
프 / 헬로조선프로젝트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오늘>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Prism> / 홍익대  
학교 성인권위원회 /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 부산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동  
아리 <여명> / 서울대학교 인문대 페미니즘 학회 <여담> /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 가나 /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페미니즘 학회 <고양이 발바닥> / 홍익대  
학교 페미니즘 학회 <보라>

계간 <문화/과학> /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 문화사회연구소 / 서교인문  
사회연구실 /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이내창기념사업회 /  
지식순환협동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 현대정치철학연구회

### 3. 연대발언

#### -서울캠퍼스 61대 총학생회 성평등위원장 장비단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1대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입니  
다. 오늘 저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1대 총학생회 알파의 일원으로 이 자리  
에 있습니다. 작년에 공론화된 성폭력 사건만 9건으로 중앙대학교는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정계를 통  
해 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보여주기를 학교에 촉구합니다. 피해  
학우가 마음 놓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계위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각각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젠더  
권력과 가해자의 지위 모든 것이 이어져서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의월 중앙  
2만 명의 학우들이 모두 마음 놓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는

반드시 과면으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형 성폭력을  
지키는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올해 들어온 사건 접수들도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복방 성희롱, 같은  
과에 학우들에 대한 외모 평가와 음담패설, 강단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비  
하 발언 등 성폭력 사건은 갑자기 등장한 돌출 행동이 아닙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들, 성차별이 전제에 깔린 모든 행위들이 성폭력 가해자를 만들  
고 옹호합니다. 동시에 피해자를 학내 공동체에서 배제합니다. 과연 학교는 이  
어지는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지금 성평등에 관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명백히 보이는 성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지  
벌해주십시오. 성폭력 가해 교수에게 계속해서 교단에 설 기회를 주는 것은 관  
대함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고 가해자에 대한 묵인입니다. 1531명의  
의결 중앙의 외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폭력 없는 중앙대학교, 성평등한 중  
양대학교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학우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계위가,  
학교가 우리에게 과면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중앙대학교가 되  
지 마십시오. 성평등은 말로만 한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에 부  
끄럽지 않은 정계 결정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영어영문학과 부학생회장 백지영

##### 범죄자가 설 교단은 없다

2014년, 2016년을 이어 2018년 벌써 3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교사와 학생간의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 공론화된 사건만 벌써 3번째 일어난 이유  
로는 학교와 사회의 미흡한 대처가 작용했다. 지난 11월 영문과 A교수의 사건  
이 공론화 된 이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고 학교 측의 반응은 미미했다.  
2018학년도 2학기 이내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 같았던 인권센터 측의 희망적  
말은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사정으로 암담한 겨울방학을 지나 2019학년도 1학  
기의 마무리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야 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그 동안  
피해자는 무수한 2차 가해성 대자보들에 노출되었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피해  
자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인권센터는 대처는 고사하고 단순히 '품위유지 손상'  
을 내세워 정계를 요청했을 뿐이었다. 피해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비상  
대책위원회의 자보와 수많은 연대 자보들에 강제 철거 스티커도 받았고, 도난도  
당했으며,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고 또 얼마 전에는 찢기는 훼손까지 당했다.  
3번째에 들어서야 영어영문학과측은 인권 및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더 있을 사  
건들을 예방하고 후에 혹시 일어날 사건들의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있어  
중요한 것은 A교수 사건의 대처다. 단순한 정계가 아닌, 단순한 견책이 아닌,  
심지어 교수가 사표를 내고 제 발로 걸어 나가 다른 곳에서 지속적인 강사생활

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명백히, 교수의 과면을 요구하는 바이다. 6개월 동안 피해자의 편에 서서 바라왔던 일이 이 자리에서 응답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많은 학우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았다. 1531인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정당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영이영문학과는, 중앙대 학우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지키고 싶으며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 나의 선배들이, 동기들이, 후배들이 더 이상 이러한 두려움에 떨게 하고 싶지 않다.

징계위원회는 A교수를 파면하라. A교수를 규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

####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과대표 채태준

지난해 11월 공문화된 '영문과 A교수 성폭력 사건'이 인권센터 대책위 과정을 마치고 오늘 마지막 학내 문제해결 절차인 징계위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와 그에 연대하는 이들이 사건해결을 위해 힘썼던 그 시절 동안, 성폭력 문제 해결과정에서 학교본부의 비비한 대응과 조치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드러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수업 배제가 늦었다. 피해자를 헐뜯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었고, 몇몇은 학교에 대자보로 등장했다. 그러나 학내 어떤 기구도 이 같은 2차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미비한 제도의 빈 공간을 메꾼 것은 학생이었다. 2차 가해 자보에는 연대 자보로 맞섰고, '선생님'들이 그 뒤로 숨기 급급했던 '절차'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인권센터와 해당 교수가 측한 학과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청했다.

영문과 A교수가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하던 대학원 문화연구학과와 구성원들 역시 그랬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비판이론과 지식이 성폭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후 문화연구학과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은 각각 자보를 통해 해당 교수의 과면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 및 피해자 보호 메뉴얼 구성 등을 요구했다. 또한 A교수 성폭력은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C강사 성폭력 사건의 공문화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문학과 문화연구 학문공동체 내의 자성과 성찰의 움직임을 요구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요구에 대한 첫 번째 답을 들을 수 있길 바란다.

대학에 성폭력 가해자가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없음을 선언하라. 대학의 안전한 대처와 가해자의 솜방망이 징계로 공동체를 떠나야 했던 수많은 성폭력사건 피해자들을 기억하라. 학문과 지식의 권위가 폭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보iera. 징계위는 A교수를 파면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이재정

-현장발언-